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Mar 4, 2024

Weekly Market Report

본 리포트는 해운시장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Summary



Drybulker

오늘 양회 개막



Tanker

봄이 오는 소리에 시드는 원유선 수요



Container

3월은 비수기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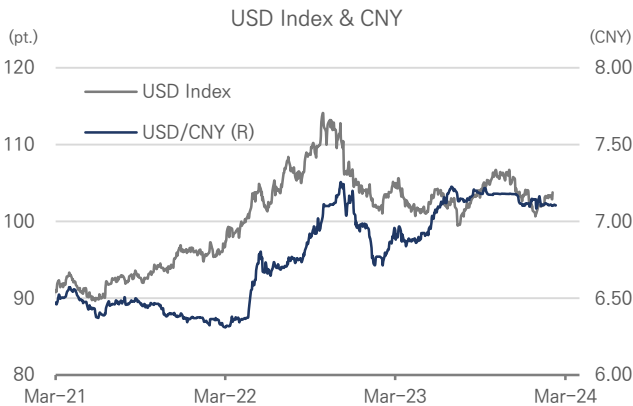


Sale & Purchase

중고 건화물선 거래 강세

Macro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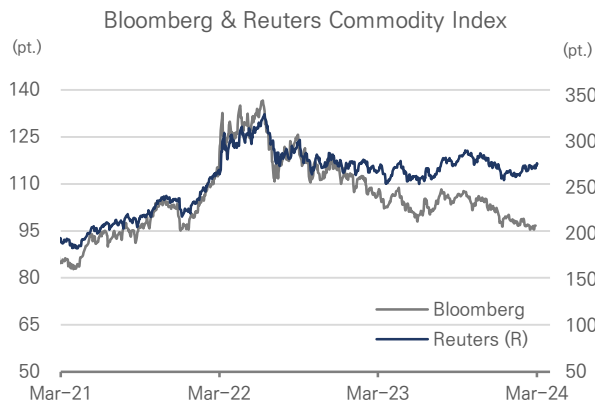
Foreign Exchange



Interest Rates



Commod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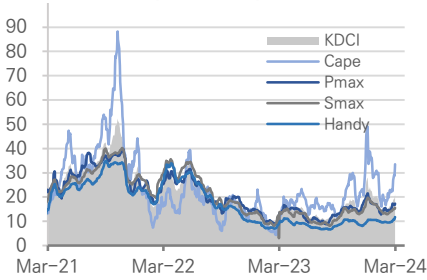


Stock Market



(US\$'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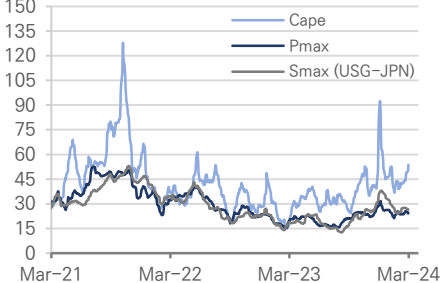
KOBC Drybulk Composite Index



		2/29	2/23	증감
KDCI		21,074	18,764	▲ 2,310
Cape	평균	33,458	26,983	▲ 6,475
	F/H	53,750	48,758	▲ 4,992
	T/A	31,625	24,240	▲ 7,385
	Pac RV	32,875	23,589	▲ 9,286
P'max	평균	17,214	17,125	▲ 89
	F/H	24,453	25,250	▼ 797
	T/A	14,850	15,625	▼ 775
	Pac RV	15,617	14,758	▲ 859
S'max	평균	15,512	14,884	▲ 628
	F/H	26,233	27,297	▼ 1,064
	T/A	18,767	20,688	▼ 1,921
	Pac RV	12,747	11,225	▲ 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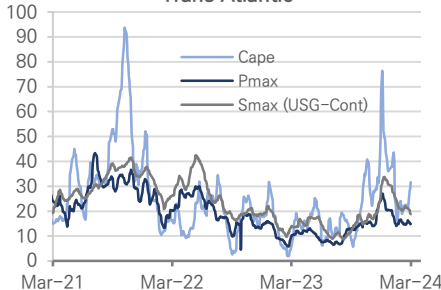
(US\$'000)

Front-Ha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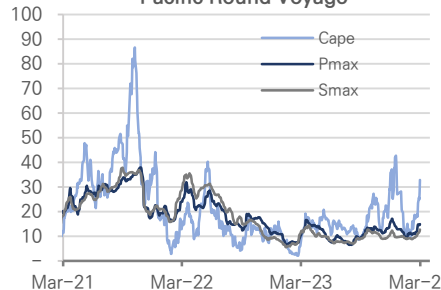
(US\$'000)

Trans Atlantic



(US\$'000)

Pacific Round Voyage



Cape

중국 양회 개막

-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철강시장 심리를 지지하는 가운데, 양회가 다가오자 철광석 등 원자재 확보 수요 유입도 가세하며 전체 건화물선 시장을 지속 견인 중
- 평년 대비 길었던 중국의 한파 현상도 완화되면서 중국 북부 지역의 건설활동이 서서히 시작됨
- 이에 제철소들의 철광석 정기조달 또한 순탄히 진행되며 태평양 수역의 물동량 증가에 긍정 작용
- 시장 참여자들은 연휴 이후 중국 철강 재고가 상당 부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급 과잉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분함
- 철광석, 원로탄 등 철강 원료 가격 약세로 인해 중국 제철소들의 철강생산 마진이 점진적인 개선을 이어가며 조강생산량도 회복세 지속
- 미국 CME 거래소의 철광석 가격(철부함량 62%, 중국 CFR 기준)은 3.1일 톤당 124.86달러로 올해 1월 고점 이후 약 14% 하락, 중국 DCE거래소의 제철용 원로탄 가격은 톤당 2394.5위안으로 작년 11월 말 고점 이후 약 12% 하락
- 중국철강협회(CISA) 회원사들의 일일 평균 조강 생산량은 2/10-20 기간에 210.9만 톤으로 작년 9월 수준을 회복
- 금일(3/4) 개막되는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 방안을 포함한 경제 정책이 제시될 예정
- 케이프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강세의 지속 여부는 양회에서 발표될 경제정책의 방향성 및 부양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

Panamax

석탄, 곡물 물동량 동반 증가세

- 중국의 건조한 석탄 수요 및 남미 곡물 시즌으로 인한 곡물 물동량 증대 영향으로 상승세 구현
- 중국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난방용 석탄 수요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활동 재개 및 해외인 대비 높은 자국 석탄 가격 등의 영향으로 태평양 역내 석탄 물동량을 지속 견인 중
- 반면, 인도는 국영 석탄회사 Coal India의 생산 증대로 인해 자국 발전소들의 석탄 재고가 2.28일 기준 4,443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이에 인디아향 석탄 물동량의 시장 견인 효과는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브라질은 대두 가격 하락세가 점차 둔화되자 자국 농부들이 신규 대두 판매를 확대하면서 남미 항로에 누적된 ballaster들이 소화되기 시작
- 브라질 곡물수출협회의 자국 대두 수출량 2월 전반기 기준 730만 톤에서 850만 톤으로 상향 조정
- 아르헨티나 또한 이번 시즌의 신곡과 지난 시즌의 구곡 판매를 동시에 늘리면서 남미 항로의 상승 전환에 일조
- 자국 농업 사무국에 따르면 2.21일 기준 아르헨티나의 대두 및 옥수수 신곡 누적 판매량은 각각 630만톤, 1,160만 톤으로 동 기간 기준 전 시즌 판매량을 크게 상회 중
- 금주 파나마식 시장은 남미와 북미의 곡물이 시장에 동시 출하되는 가운데 중국향 석탄이 꾸준히 선박을 소화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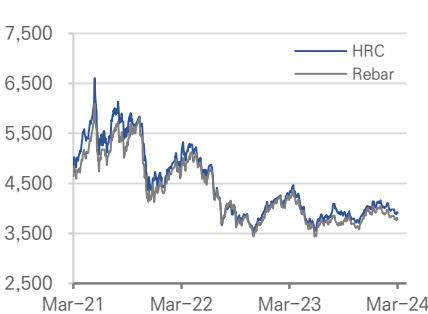
Supramax

더 많이 필요해요

- 대서양의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인니 석탄 중심의 태평양 수요 강세로 인해 상승세 지속
- 태평양은 파나마식과 마찬가지로 인니 석탄이 역내 선박수요를 계속 견인하면서 꾸준한 상승세 지속
- 반면 대서양은 미국 및 흑해 주간 곡물 수출검사량이 증가했음에도, 선박 공급 누적에 따른 하방압력이 해소되지 않아 낙폭 확대
- 이번주 수프라맥스 운임시장은 태평양 항로들의 물동량 강세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구조가 이어질 것

(CNY/t)

Steel Price (China)



(US\$/t)

Iron ore Price



(US\$/t)

Steam Coal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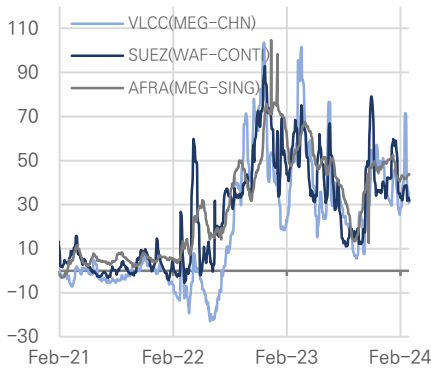
(US\$/bu)

Grain Price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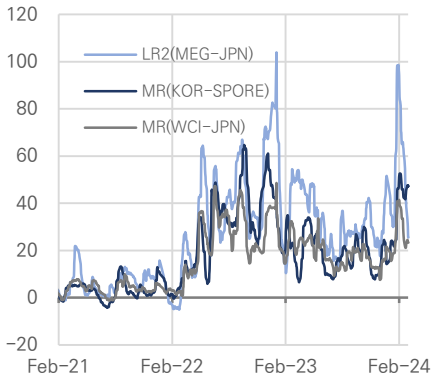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lobal Market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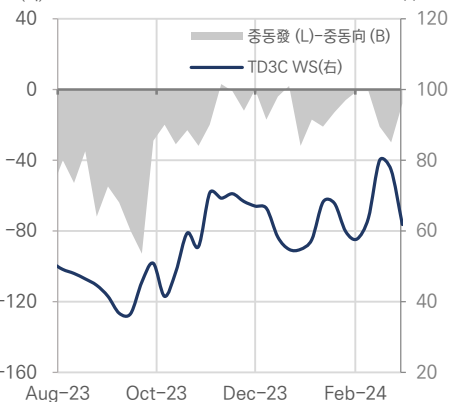
(US\$'000) Crude Tanker Spot 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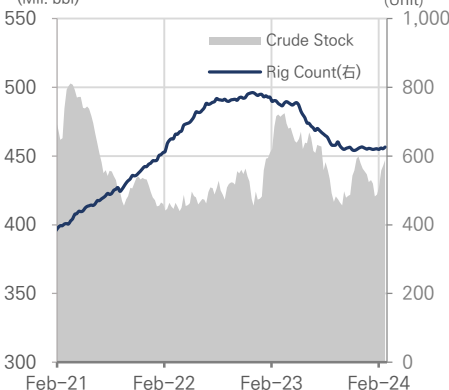
(US\$'000) Product Tanker Spot Earning



VLCC 중동 기준 Laden/Ballast Spread (ppt)



(Mil. bbl) US Crude Stocks & Rig Count



원유선

- VLCC: 주 초반 중동·대서양 모두 수요 정체에 따른 소강 상태가 지속되며 2주 연속 운임 하락을 보였으나 주 후반 단기 저점을 확인한 화주들의 고품질·저선형 선박 확보 움직임이 동시에 풀리면서 중동/극동항 WS60 수준 10여척이 성약되며 운임 추가 하락을 제한
- 금주도 전반적인 화주 우위 시장에서 중동·대서양 지역 고품질·저선형 선박을 중심으로 선주의 운임 저항이 지속되며 운임 하락을 제한하는 양상의 약보합세 전망
- Suezmax: 중동 수요 정체에 따른 약세를 보였으나 서아프리카는 전주 대비 성약 활동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보험세로 마감
- Aframax: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의 활발한 성약을 보이면서 운임은 상승 조정을 보였으며 주 초 부진했던 West of Suez 지역도 역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보험세로 마감

제품선

- LR2: 지난주 중동 수요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가용선박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주간 대비 WS 37 급락세를 보였으며 금주 또한 풍부한 가용선박으로 인해 화주 우위의 운임 약세 전망
- MR: 중동·싱가폴 수요 부진으로 운임 약세를 보인 반면 극동지역 주 초반부터 활발한 성약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일부 화물이 LR 선형으로 이전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강보합세 마감

	VLCC (MEG-China)	Suezmax (WAF-Cont.)	Aframax (MEG-SGP)	LR2 (MEG-JPN)	MR (KOR-SGP)*
WS	60.32 ▼ 5.68	103.41 ▲ 0.23	197.50 ▲ 2.14	144.72 ▼ 37.50	37.11 ▲ 0.93
TCE (US\$/day)	31,284 ▼ 6,904	31,966 ▲ 48	43,680 ▲ 824	25,567 ▼ 12,932	47,345 ▲ 1,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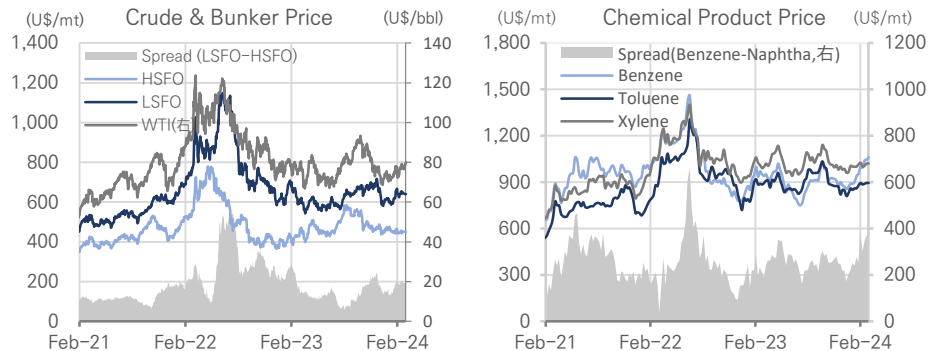
※ MR(KOR-SGP) 운임: US\$/mt

국제유가

- 국제유가는 OPEC+ 자발적 감산 연장에 의한 공급 감축 전망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지난 주 초반부터 Dubai유를 비롯한 Brent, WTI 3개 유종 모두 상승폭을 확대
- 로이터 통신은 OPEC+가 자발적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 검토 보도,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협상 중 팔레스타인 주민 100여명 사망 사건 발생으로 긴장 고조 및 유가에 영향
- 미국 원유 상업 재고는 전주대비 420만 배럴 증가한 4억 4,720만 배럴 기록(EIA)
- 원유재고 증가는 1월 한파로 인한 정제설비 가동중단 및 정기 유지보수 등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최근 정제가동률은 3년 만에 최저치인 80~83% 대에 머물고 있고 낮은 정제가동률로 휘발유와 중간유분의 재고도 감소 추세를 보임
- 러시아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로 글로벌 정제 마진 상승 및 석유제품 가격(싱가포르) 상승세
- 러시아는 국내 수요 충족 및 가격 안정 위해 향후 6개월간 휘발유 수출 금지 발표. 현재 유럽 석유제품 재고 낮은 상황에서 봄철 유지보수 규모 늘어나며 석유제품 가격 강세 전망

연료유가

- 춘절 이후에도 병커링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원유가 강세와 달리 약보합세로 마감
- LSFO/ HSFO Spread, 주간 0.3% 축소된 \$191/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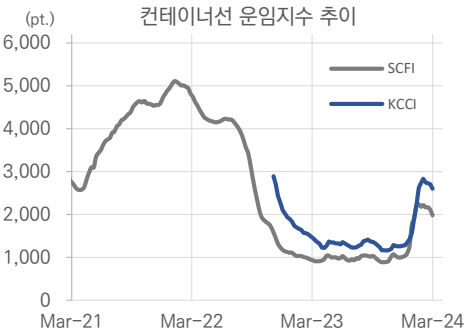


	WTI	HSFO	LSFO	Spread
가격*	79.97	450.00	641.00	191.00
증 감	▲ 3.48	▼ 1.00	▼ 1.50	▼ 0.50

	Benzene	Toluene	Xylene
가격	1060 ▲ 15	895 - 0	1020 - 0
Spread*	373 ▲ 5	208 ▼ 10	333 ▼ 10

※ Bunker Price : Singapore 기준

※ Spread : Naphtha 대비 편차



	'24.3.1.	'24.2.23.	증감
SCFI	1,979.12	2,109.91	▼ 130.79
美서안	4,262	4,691	▼ 429
美동안	5,747	6,127	▼ 380
유럽	2,277	2,508	▼ 231
지중해	3,292	3,465	▼ 173
동남아	285	297	▼ 12
중동	1,715	1,701	▲ 14
호주	1,133	1,213	▼ 80
남미	2,625	2,625	- 0
日서안	289	289	- 0
日동안	302	302	- 0
한국	153	155	▼ 2
동서Africa	2,310	2,397	▼ -87
남Africa	1,874	1,912	▼ -38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선형 (TEU)	건조 연도	용선기간	\$/Day	성약주차	Trend
700	1998	11~13M	6,500	2월2주	▲
1,700	2022	3~6M	12,500	2월1주	▼
2,500	2000	7~9M	13,750	2월2주	■
4,400	2010	10~12M	24,800	2월2주	■
6,800	2004	24M	24,500	2월1주	▼
9,000	2014	3Y	41,000	1월3주	▲
13,000+	2014	70~90D	50,000	10월4주	■

총 합 SCFI '1,979.12 pt' 6.2% 하락, KCCI '2,600pt' 3.8% 하락

- 미동안, 유럽 항로 9% 하락, 대부분 항로의 물동량이 크게 줄며 하락세
- SCFI '1,979.12pt'로 6.2% 하락하며, 유럽 9.2%, 미동안 9.1%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KCCI도 '2,600pt' 3.8% 하락, 특히 지중해 노선은 9.25% 하락함
- 한편, 美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8%로 예상치(-0.2%)보다 하회하며 운송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휴 이후 공급이 회복되며 대부분 주요 노선이 하락

미주항로 美서안, 동안 모두 하락, 수요 감소하며 운임 하락

- 미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8% 감소해 시장 예상치(전월대비 0.2% 감소)를 크게 하회하며, 지난해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음. 미국 수요는 북미 노선 해운 수요 증가도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연휴 이후 시장운송 수요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 한편, 상하이항에서 미국 서부 및 동부로 수출되는 시장 운임(해상운임 및 해상운임 할증료)는 각각 \$4,691(FEU/\$), 6,127(FEU/\$)로 각각 2.9%, 5.0% 하락함

유럽항로 지중해 9.25%, 북유럽 6.46% 하락

- S&P Global이 발표한 2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46.1로 하락해 시장 기대치(47.0)보다 크게 하회하였으며, 연휴 이후 시장 운임(해상운임 및 해상운임 할증료)이 6.5% 하락하였으며, 유럽 항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 한편, 미군은 홍해의 선박에 위협을 가하는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 6기와 드론 한 대를 공격하였으며, 예멘 내 230개 목표물 타격했다고 밝힘

연근해/기타 아주 항로 상승 반전

- 아주 항로 운송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KCCI 연근해 항로 운임 상승 전환

KCCI (KOBEC Container Composite Index)

Group	Code	Route		Weight	'24.3.4.	'24.2.26.	증감
종합지수	KCCI				2,600	2,703	▼ 103
Mainlane 원양항로	KUWI	USWC	북미서안	15.0%	4,477	4,678	▼ 201
	KUEI	USEC	북미동안	10.0%	5,708	6,005	▼ 297
	KNEI	Europe	북유럽	10.0%	4,169	4,457	▼ 288
	KMDI	Mediterranean	지중해	5.0%	4,749	5,233	▼ 484
Non- Mainlane 중장거리항로	KMEI	Middle East	중동	5.0%	2,986	2,974	▲ 12
	KAUI	Australia	오세아니아	5.0%	2,151	2,191	▼ 40
	KLEI	Latin America East Coast	중남미동안	5.0%	2,996	2,980	▲ 16
	KLWI	Latin America West Coast	중남미서안	5.0%	2,499	2,339	▲ 160
	KSAI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2.5%	2,159	2,109	▲ 50
	KWAI	West Africa	서아프리카	2.5%	2,143	2,143	- 0
Intra Asia 연근해항로	KCI	China	중국	15.0%	32	32	- 0
	KJI	Japan	일본	10.0%	183	182	▲ 1
	KSEI	South East Asia	동남아	10.0%	404	383	▲ 21

* 부산항 선적, 해상 수출 SPOT 운임, USD, 전 항로 40FT Dry Container 기준

「오션 얼라이언스, '32년까지 동맹기간 연장」(로이드리스트, 24. 2. 27)

- 오션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27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동맹 만료일을 '32년으로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 오션 얼라이언스는 현재 선복량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해운동맹이며, CMA CGM, 에버그린, 코스코, OOCL 등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속해 있음. 얼라이언스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객 요구를 충족과 얼라이언스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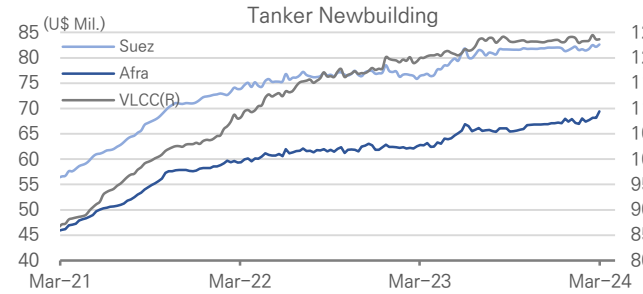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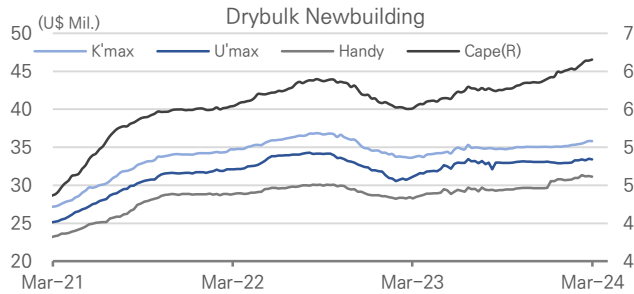
「CMA CGM, '23년 4분기 9천만달러 영업손실 기록」(로이드리스트, 24. 2. 27)

- CMA CGM 그룹은 '23년 한 해 동안 건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4분기에는 9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기록. 작년 4분기 실적은 4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 해상 부문 매출은 처리량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7% 감소한 314억 달러를 기록. 한편, CMA CGM은 내년에도 글로벌 성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고가 일부 소진됨에 따라 컨테이너 물량이 작년 저점 대비 반등할 것으로 언급

Sale & Purchase

Newbuilding & Re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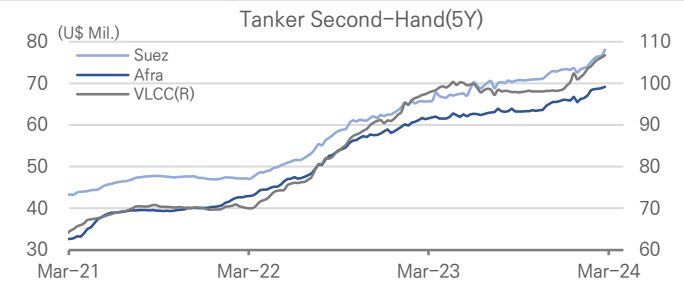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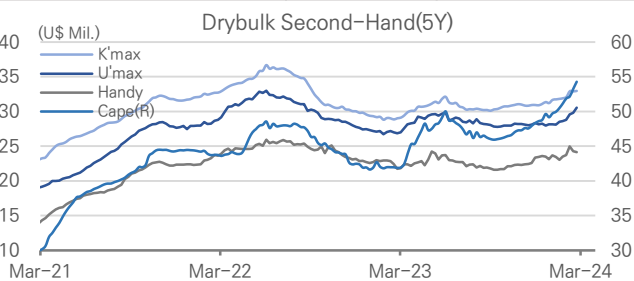
Type		DWT	Newbuilding				Resale			
			금주	+/-	'24평균	'23평균	금주	+/-	'24평균	'23평균
Drybulk	Cape	180K	66.56	▲ 0.14	65.76	62.21	70.98	▲ 0.91	68.17	59.99
	Kamsarmax	82K	35.79	▼ 0.02	35.45	34.56	38.97	▲ 0.17	38.24	36.75
	Ultramax	64K	33.39	▼ 0.08	33.22	32.43	37.75	▲ 0.61	36.00	35.36
	Handy	33K	31.15	▼ 0.07	30.99	29.26	32.06	▲ 0.06	31.52	29.73
Tanker	VLCC	310K	123.68	▲ 0.02	123.66	122.00	134.57	▲ 1.50	130.69	125.03
	Suezmax	160K	82.62	▲ 0.46	81.97	79.87	95.95	▲ 0.39	93.85	86.81
	Aframax	105K	69.40	▲ 1.25	67.88	65.05	79.10	▲ 0.33	77.41	74.55



Type	Size	Buyer	Builder	Price	No.	Delivery	Remarks
VLCC	320,000 DWT	Hyundai Samho HI	DHT Management	\$129.1m	2+2	'26-'27	-
Bulker	210,000 DWT	Eastern Pacific Shpg	Qingdao Beihai SB	-	4	'28	Ammonia Ready
PCC	9,350 CEU	Wallenius Wilhelmsen	CMJL (Nanjing)	-	4	'27	Methanol, Ammonia Rea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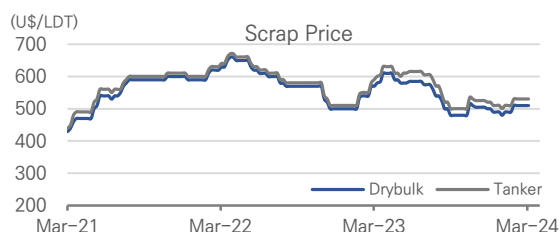
Secondhand

Type	DWT	5 Years Old				10 Years Old				
		금주	+/-	'24평균	'23평균	금주	+/-	'24평균	'23평균	
Drybulk	Cape	180K	55.45	▲ 1.15	52.06	46.30	36.98	▲ 1.33	33.65	29.77
	Kamsarmax	82K	33.14	▲ 0.19	32.34	30.45	24.31	▲ 0.01	23.70	21.70
	Ultramax	64K	30.95	▲ 0.41	29.22	28.25	23.60	▲ 0.68	21.95	19.56
	Handy	33K	23.97	▼ 0.18	23.86	22.60	16.69	▲ 0.18	16.24	15.22
Tanker	VLCC	310K	107.50	▲ 0.76	104.73	98.31	81.20	▲ 1.20	77.90	72.99
	Suezmax	160K	78.67	▲ 0.65	75.76	69.20	65.34	▲ 0.20	62.77	55.59
	Aframax	105K	69.23	▲ 0.09	68.06	62.98	56.94	▼ 0.02	55.51	50.80



Type	Vessel	Size	Built	Builder	Price	Buyer
Tanker	ECO SEAS	299,998 DWT	2016	Daewoo (DSME)	\$98.5m	Undisclosed
Bulker	SHIN KORYU	207,991 DWT	2009	Universal SB (Tsu)	\$32m	Undisclosed
Bulker	ANDROMEDA	61,501 DWT	2011	Oshima Shipbuilding	\$20.7m	Undisclosed

Scrap Price



	India				Bangladesh			
	금주	+/-	'24평균	'23평균	금주	+/-	'24평균	'23평균
Bulker	480	-	481	529	510	-	502	538
Tanker	500	-	501	546	530	-	522	559

용 어	해 설
공선	선박이 화물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
내로우빔 (Narrow Beam)	좁은 선폭의 선박
새시 (Chassi)	컨테이너를 탑재하여 일체화되는 트레일러의 대차
와이드빔 (Wide Beam)	넓은 선폭의 선박
용선료	선박을 빌리고(용선) 이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선주에게 지불되는 금액
용선주	선박을 용선하는(대여받는) 자
정시성	정기선의 운항일정 준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공표 일정 대비 실제 운항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
Aframax	재화중량톤(DWT) 8~12만톤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
ARA (Amsterdam-Rotterdam-Antwerp)	유럽의 주요 수출입 항구,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앤트워프의 약자
Ballast	공선 상태에서 선박의 안정성 및 감항성 유지를 위해 해수를 선박에 싣는 행위
Cape	재화중량톤(DWT) 10만톤 이상의 대형 건화물선으로 철광석과 석탄을 주로 운송
CBM (Cubic Meter)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 단위
DWT (Dead Weight Tonnage)	재화중량톤.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의미
F/H (Front Haul)	다수의 화물수송이 이루어지는 선종별 주 수송구간(건화물선 대서양→태평양)
FE	‘철’을 의미하는 ferro의 약어. 보통 철광석의 철분 함량을 표시 (FE 62%)
Feeder	대형 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 간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서비스 또는 선박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 40피트(feet)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 1FEU=2TEU
FFA (Forward Freight Agreement)	운임선도거래. 미래 특정 기간의 운임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하여 계약하는 거래
Handy	재화중량톤(DWT) 4만톤 미만의 소형 건화물선
HRC (Hot Rolled Coil)	열연강판. 철 슬라브를 압연하여 생산한 1차 제품으로 냉연강판, 강관 등의 소재로 쓰임
HRCI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호이-로빈슨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HSFO (High Sulfur Fuel Oil)	유황성분의 함량이 0.5% 초과 / 3.5% 이하인 고유황 연료유
Indon	인도네시아
Kamsarmax	재화중량톤(DWT) 8~9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LA/LB (Los Angeles/Long Beach)	미국 서부 대표 항만인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을 의미
LDT (Light Displacement Tonnage)	경화배수톤. 화물을 제외한 선박자체의 중량으로 선박 해체 매각 시 지급하는 선가의 기준
LR2 (Long Range2)	재화중량톤(DWT) 8~12만톤급 유조선으로 주로 석유제품을 운송
LSFO (Low Sulfur Fuel Oil)	유황성분의 함량이 0.5%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
MR (Medium Range)	재화중량톤(DWT) 4~6만톤 규모의 유조선으로 석유제품을 운송
Pac RV (Pacific Round Voyage)	태평양 역내를 왕복 운항하는 순환 항로
Panamax	재화중량톤(DWT) 7~8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 기업의 구매담당자 대상 설문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경기 판단 지표로 사용
Rebar (Reinforcing bar)	철근
SB (ShipBuilding)	조선(소)
SCFI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Suezmax	재화중량톤(DWT) 12~20만톤급 원유 운반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유조선
T/A (Trans Atlantic)	대서양 역내를 운항하는 항로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 20피트(feet)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
Ultramax	재화중량톤(DWT) 6~7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VLCC (Very Large Crude-Oil Carrier)	재화중량톤(DWT) 20만톤 이상 초대형 원유운반선
WS (Worldwide Tanker Nominal Freight Scale)	주요 항로별 기준 운임율(Flat Rate)을 상대지수로 나타낸 지표
WTI (West Texas Intermediate)	서부 텍사스산 원유. 영국 북해의 브렌트유, 중동의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유종

KOBC Drybulk Panelists

	Jangsoo Shipping		Flaship		Ascent Bulk		Daesang Shipping
	Basim Chartering		Max-Bridge		Greatwall International		Ace Chartering
	Kaya Shipping		Interlink		Optima International Shanghai		M.I.T Chartering & Agency
	Good Turn Transportation		Ocean Robin Shipping		Howe Robinson Singapore		OHY Shipping
	BNS Shipping						

KOBC Tanker Panelists

	Presco International		Reshamwala Shipbrokers		Neostar Maritime		KOEL International
	Hans Shipping		Nav Maritime		Seoul Line		

KOBC Container Panelists

	Unico Logistics		Pactra International		Eunsan Shipping & Aircargo		Euroline Global
	Taewoong Logistics		Samsung SDS		Hyundai Glovis		Ramses
	CJ Logistics		LX Pantos		Posco Flow		Onnuri Logistics
	Joosung		Sejung Shipping		Lotte Global Logistics		PNS Networks
	NTI Logistics		HJ GLS		Alonso Forwarding Korea		SIC

KOBC S&P Panelists

	Gyro Maritime		Forocean Shipbroking		Seasure Shipbroking		Pioneer Shipbrokers (Vietnam)
	Hanbada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Fides Corp.		Harvest Shipbrokers
	Kims Maritime		GMS Korea		Maxmart Shipping & Trading		SSY Korea
	Haidely Shipping		STL Shipping		HIT Marine Company		Reshamwala Shipbrokers